축구공으로 하나 되는 民心과 佛心

부산불교, 시민 축구단 부산FC 후원행사 개최

부산FC vs 부여FC 경기서
축하공연 · 시축 등 진행해
수불 스님 1억 후원금 전달
"스포츠, 미래 위한 꿈 터전"


8월 26일 2017 K-3리그 13라운드 부산FC와 부여FC 경기에 앞서 부산불교계가 부산 시민 축구단 부산FC를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부산FC 발전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건강한 스포츠 문화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 시민 축구단, 부산FC를 위해 부산 불교계가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하고 나섰다.

2017 K-3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열린 8월 26일, 부산불교계는 후원행사를 열고 부산FC 지속 후원 및 회원 모집에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날 특히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부산FC 발전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후원 행사는 부산 불교계와 부산FC가 함께한 발자취 영상 시청과 후원금 전달, 수불 스님 격려사 그리고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 후에는 내빈들의 시축과 사인볼, 기념 축하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수불 스님, 심산 스님, 하림 스님(불교축구단 축구사랑 대표), 정관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여해 부산FC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관중석에는 안국선원 및 원오사 등 부산 불자 1000여명이 동참해 후원금 전달식 후 진행된 부산FC와 부여FC 경기를 관람했다.

수불 스님은 "부산FC 발전에 관심을 부탁한다"며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부산 시민과 스포츠계 발전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시장은 "부산FC 발전을 위해 늘 응원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은 "오늘에서야 부산FC의 역할과 활동을 바르게 알게 됐다"며 "바르셀로나 축구팀과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 모두가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부산 FC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구단으로 올해 1월 정식 창단했다. 기업 구단이 아닌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시민협동조합으로,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손원우 부산FC 본부장은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구단에 불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불교 내 스포츠 포교 활동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 출전 및 조합원 2만 명 모집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구사랑 대표 하림 스님은 "스포츠는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미래 청소년들의 꿈의 터전"이라며 "많은 이들이 건전한 문화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스님은 부산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일명 '축구 포교'에 앞장서 왔다. 축구 동호회 활동 중 손원우 부산FC 본부장을 만나 크고 작은 후원을 이어왔다. 하림 스님과 축구사랑 회원 스님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원하고 부산FC 창단도 도왔다. 올해 1월 창단한 부산FC는 지난 제1회 범어사배 친선 축구대회 당시 행사를 후원하고 현재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단을 지도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FC는 지난달 27일 부산시축구협회와 협의해 서병수 부산시장을 첫 주자로 '부산시 축구시민 1만 명 모으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FC 홈페이지(www.busanfc.org/contact-us)를 통해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을 위해…

화엄승가회, 8월 27일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
부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 명 참여 '눈길'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대학은 8월 27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밝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섰다. 현대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자신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길 알리는 자리였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8월 27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스님들의 캠페인 의지에 동참하며 이날은 부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부산불교대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은 자살 1위 교통사고 1위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가지고 있다"며 "죽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악업의 시작이다. 남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엄성이 부산 일대에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얻길 바라고 밝은 사회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개회식 후 참가자들은 부산 번화가인 서면 상가 거리를 돌며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과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문화질서'를 담은 안내서 3,000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 안내에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그리고 경제문제가 자살 원인이 되며 자살 전 언어 신호와 행동 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특히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를 받은 서면 거리의 시민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캠페인이 반갑다고 전했다.

박윤걸(55) 씨는 "저도 불자인데 절이 아닌 거리에서 스님들을 뵙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뵈니 기쁘다"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대학은 1982년 개교해 36년 동안 1만1,000여 졸업생과 1천200여 포교사 그리고 150여 스님을 배출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대학 출신의 스님들이 2015년 창립해 자비의 연탄나눔, 장애인 행복 쌀 나눔, 무료급식 지원, 모교 발전 기금 후원, 부산지역 5개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기금 전달 등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화엄승가회는 자살방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어린이 마음 속 감사향기를 심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회 어린이 재가안거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재가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8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재가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내 안의 감사향기'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 앞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린이 눈높이 안거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안거는 여름방학을 맞아 21일간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감사향기 프로그램 책자에 낙관과 함께 선물을 받고, 소감을 나누며 회향식을 마무리 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뿐"이라며 "겨울 하안거 수행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련이 주관한 이번 어린이 재가 안거는 수행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어린이 안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눈길을 모았다. '내 안의 감사향기' 어린이 재가 안거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사찰 외 봉은사 유아 법회, 진해 대광사, 양청 방과후 아카데미, 서울 원광사, 의왕 청계사, 울산 정토사 등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엄마 없이 보내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성주사, 8월 26~27일 '아빠와 함께…' 실시


성주사는 8월 26~27일 성주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엄마 없이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성주사(주지 원종)는 8월 26~27일 성주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엄마 없이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아빠와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업무로 바쁜 아빠와 소통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주지 원종 스님과 참가자 가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김덕민(46) 씨는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가 3번째다. 아이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며 "핸드폰도 반납하고 일상과 단절해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마음을 나누니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주지 원종 스님은 "많은 학교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각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

8월 29일 경내 일원서… 300여 사부대중 참석


군위 인각사는 8월 29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군위 인각사(주지 원학)는 8월 29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천년고찰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위대한 민족문화의 정수를 모아 〈삼국유사〉를 엮은 곳"이라면서 "〈단군 건국기〉에 실린 최초의 기록으로 인각사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곳에서 일연선사의 다례재를 봉행함에 큰 기쁨을 느끼며, 민족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숭고한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8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